

꽤 오래전에 주한 미군이 주둔했던 자리에 세워지는 외국인을 위한 공동주택 프로젝트의 계획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사용자층을 대표해서 나온 미군 군속과의 첫 대면에서 건축가는 제2의 조물주와 같으니 소신껏 잘 해 달라는 뜻으로 "Architect is next to god"이라는 말로 격려와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전에는 그런식으로 건축주로부터 대접을 받아 본 경험이 없던 터라 신기 하기만했고 세상물정 모르고 으쓱대기 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외국인들의 상투적인 사람부리기 방법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15년이상 지난 일 임에도 불구하고 더러 생각이 나기도 한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 사회가 집짓는 일과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일종의 외경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분당구 시범단지 에 위치하고 있는 "올림픽 스포츠 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특히 청소년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사회체육 시설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먼저 시행하여 완성을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현재 이 건물의 운영을 맡고 있는 곳은 진흥공단이 따로 설립한 "한국체육산업주식회사"

라는 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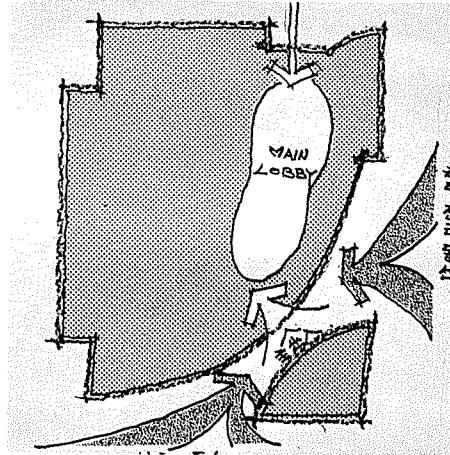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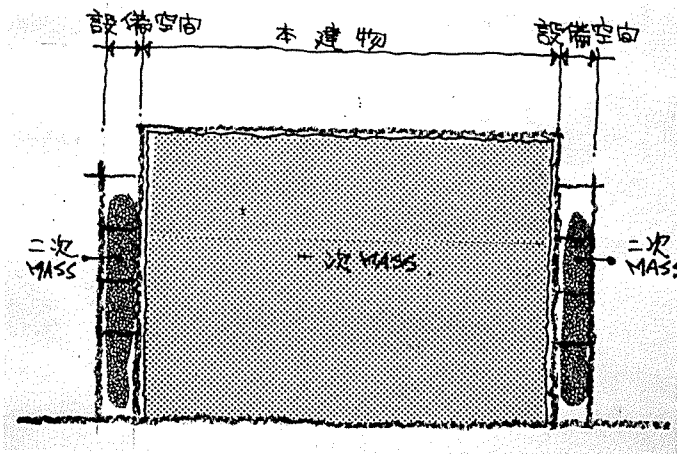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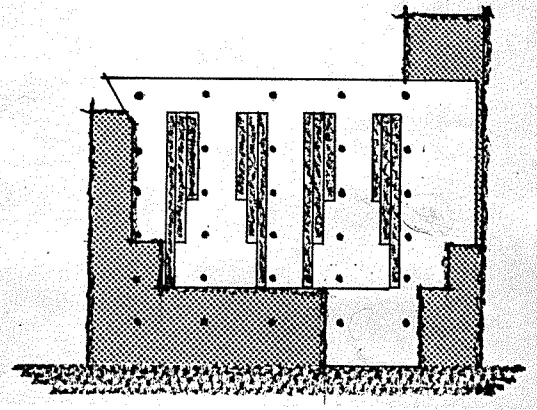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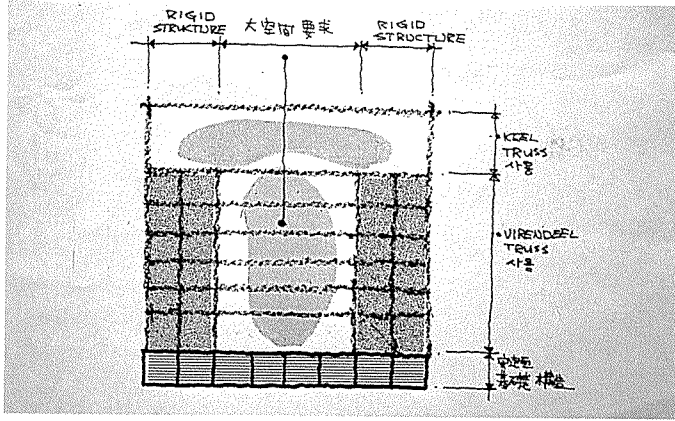
이 일은 1990년 12월부터 1991년 2월까지 현상설계로 시작되었다. 응모한 세작품 가운데 범건축안이 채택되었고 그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이 했던 점은 발주자측에서 미리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상응모자가 나름대로 사업계획 및 건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에따라 건축계획안을 제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에는 전문가가 마련한 사업계획과 발주측의 의지에 따라 계획이 진행되었지만 초기부터 건축가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함께 참여의식을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해 되었다. 매번 느

올림픽 스포츠 센터

Korean Olympic Sports Center

朴英健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by Park Young-Keon





계획스케치(개념도)

끼는 일 이지만 설계프로젝트를 처음에 기대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빼어 놓을 수가 없다.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치거나 건축주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해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어쩌면 미리 예정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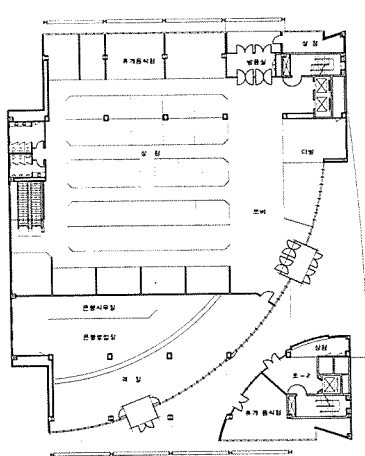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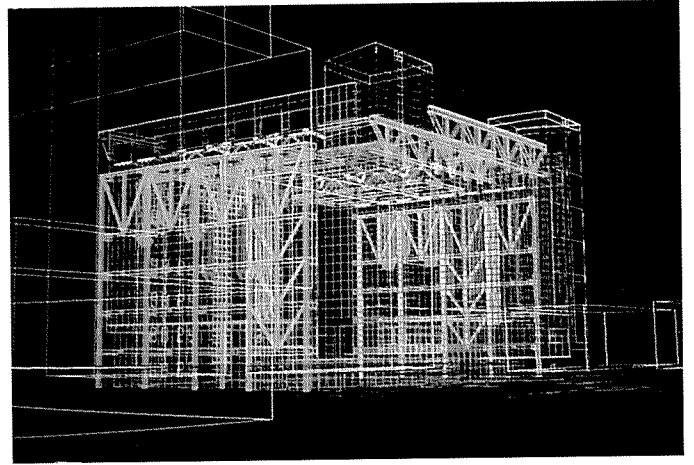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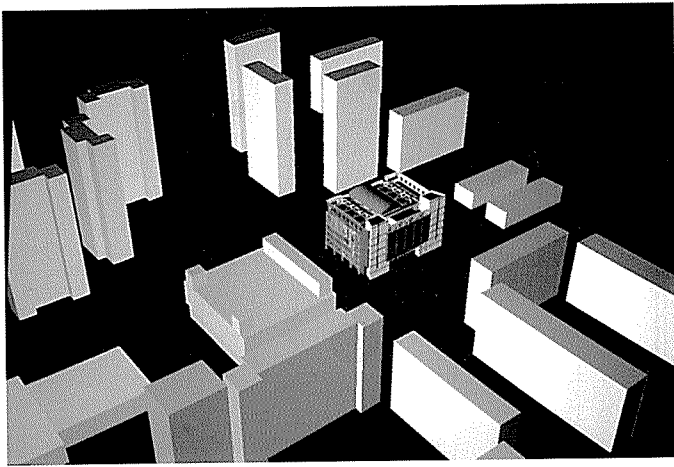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대단한 비용이 투입되는 자신들의 소중한 건물을 맡아 설계하는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나 스스로 택한 건축가에 대한 불신이나 홀대야말로 건축주 스스로의 손해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외가 있다면 건축주가 개인이 아니고 조직을 갖춘 단체 또는 집단인 경우에 그 소속원들이 소위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집단 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와 독재자 성향의 주인이나 권력자 밑에서 실속이나 차리려는 하인 근성을 가진 일부 실무계층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요즈음의 사회 분위기 탓에 건축설계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공공성을 띤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경우에도 기업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쩔수가 없다고 한다. "현상설계"에 붙이면 여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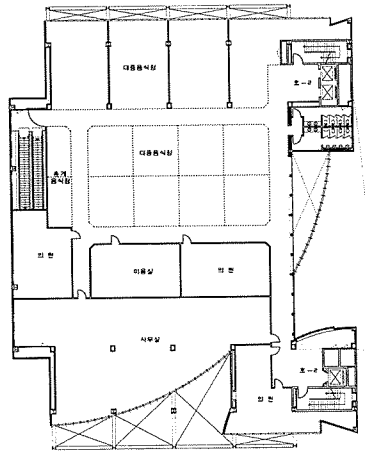
지로 이득이 있다고 생각들을 한다. 우선 남들로 부터 의심받지 않아 좋고 돈 안들이고 경쟁시켜 좋은 "아이디어" 받아서 좋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현상설계판을 벌린다. 근본적으로 발상에 문제가 있다. 건축설계를 이권차원에서 다루려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걸핏하면 외국으로부터 들여 오자고 한다. 이 나라에 잘 못 되고있는 것이 어디 한두가지라고 모두 수입해서 해결한단 말인가? 그런 발상을 하는 부류일수록 자신들의 일은 "신도불이"로 해결 해야된다고 강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이런점에 비추어보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분명히 소유주는 아니었으나 경영책임자로서 확고한 주관을 갖고 계획을 추진 해 나간 이 회사의 대표는 건축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의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설계가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불치의 병을 얻게 되고 기공식 때는 병석에 누워 계셨으며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김 용모 사장님을 추모하며 옷 깃을 여미고 삼가 그분의 명복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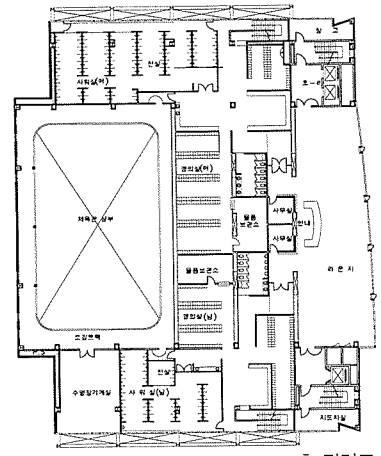
그 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단한 분이셨다고 말한다. 매사에 적극적이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완전한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 하셨다고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로 구사하면서 행하신 일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셨던 분이라고 한다. 원만한 사람이면 그 분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만 했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인정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많은 보스 이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자로서 그분을 처음 대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를 거듭할 때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일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간에 믿음이 짝 텃으며 드디어는 건물이 완성되어 금년 봄에 한국 강구조학회로부터 포스코 철골건축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바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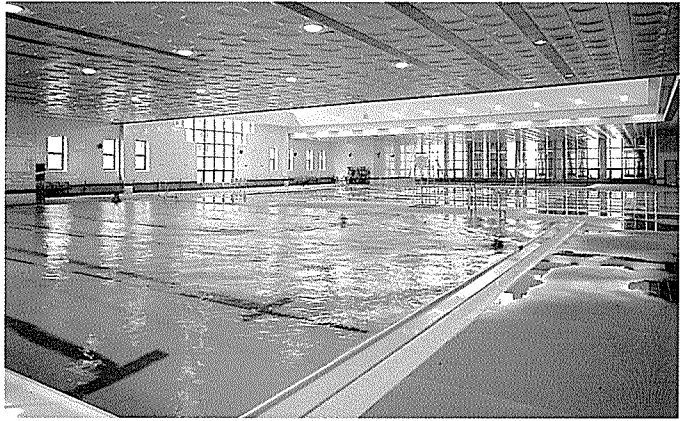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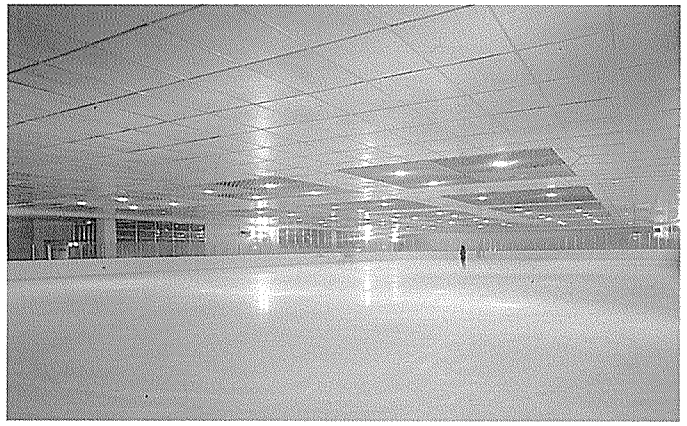
당초의 목표가 88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체육시설을 계획하는 것이었지만 국내에 적당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었고 경영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일이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외국의 스포츠마케팅 전문회사에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이 주어지고 국내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및 건축프로그램이 확정되었지만 건축주의 주도로 용역회사와 건축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었다.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한 시설로서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는 30미터×60미터 넓이의 아이스링크, 충분한 자연 채광과 환기시설이 요구되는 실내수영장을 중심으로 다용도 체육관과 헬스, 에어로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편의 및 상업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근자에 와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각종 건설에 관련된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고 하는 200만호 건설 사업의 와중에서 설계가 진행되었다. 분당 신도시의 시범단지내 중심축

의 일반상업시설의 일부로 계획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의 미확정적인 상황을 놓고 반신반의 하는 가운데 그림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었다. 제대로만 된다면 더 없이 좋을 상황이었다. 이상적으로 꾸며진, 기존 도시에서의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는 신도시에서의 생활을 상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상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 프로젝트의 계획목표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새로운 도시환경에 적응하는 적극적인 체육공간의 수용과 표현!!

분당 시범단지내의 공간체계는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형성된 주거군 사이에 이를 지원하는 상업편의 및 공공시설과 휴게녹지 등이 일반통행인 도로를 양쪽에 끼고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계획대지는 이러한 중심축과 직교하는 단지내 간선도로에 면하여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고 인지도가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원래의 단지계획상 의도는 중심축에 따라 보행전용 통로가 형성되는 것이었으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간선도로에서 연결되지 못한점은 아쉬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현상안에 있었던 대지의 앞뒤를 연결하는 보행전용의 중앙 통로는 소극적으로 처리되었으나 건물의 로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면도로와 진입공간을 연결하는 외부통로가 적극적으로 계획되었다.

공간의 성격이나 구조면에서 서로 다른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특히 지하



부분에 대규모 무주공간을 필요로하는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면서 지상부에 마련된 다른 체육시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방식이 채택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철골구조 방식이 선택되었고 30미터에 이르는 장스팬 구조의 안전과 최상부 실내 수영장을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킴-트러스와 뷔렌달-트러스 등이 적절하게 구사되었다. 지하부분과 지상부분의 벽면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노출된 철골구조부분은 이 부분에 설치된 공기덕트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 건물 일부가 되었다.

건축설비 면에도 여러가지 각별한 배려가 요구되었다. 아이스링크, 수영장 등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실내 공간과는 사뭇 다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을 통하여 외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설비가 필요했다. 일종의 냉동창고인 아이스링크 실내 환경 조건을 유지한다거나 항상 습한 상태인 실내 수영장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건물구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심각한 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며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기간 중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사업비 조달문제가 당초계획과 차질이 생겨 건물의 상당부분을 분양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간을 건축주의 통제를 벗어나 지나치게 상업화 하여 공공 건물로서 품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런대로 모양을 갖춘 외관에

비하여 시행착상 구체적인 실내공간 계획이 설계단계에서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실내외에 걸쳐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마감할 기회를 잃게된 점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에 따라 설치한 환경조각은 처음에는 건축주의 이해부족으로 설계자와 상의 없이 집행되어 약간의 물의를 일으켰으나 어느정도 조정과정을 거쳐 보완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조각을 다루는 작가와 건축가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이 규정이 조각가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건물 또는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순수 예술작품으로서의 조각 작품 자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러 발생한 민원문제는 결코 유쾌하지 못한 뒷맛을 남겼다.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인근 주민의 항의를 받았는데 계획단계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일부 시인한다 하더라도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면도 없지 않고 본다. 결과적으로 전후면 유리창은 밖이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의 필름으로 도배하는 불상사를 낳고 말았다.

벌써 준공 일주년을 맞았으나 건물 성능이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아직은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아 시공회사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좀더 성의를 갖고 작업에 임해 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